통일세대를 대비한 한국기독교 예배음악의 대안

손해석(백석대 기독교철학대학원 석사과정)

들어가는 말
몸말
가. 통일세대를 대비한 예배문화 기반(Infrastructure) 구축의 걸림돌
1. 신,구세대의 예배문화 단절
1-1). 예배제도를 통한 모색의 한계
1-2). 세대 간 단절된 예배에 대한 위기의식 결여
2. 민족정체성을 파괴하는 언어의 어절법 파괴
나. 통일세대를 대비한 예배음악 콘텐츠의 중요성
1. 한겨레(韓民族)의 유전자 3분박 장단(Rhythm)
1-1). 분박(分拍)이란 무엇인가
2. 음악적 세계관의 차이
2-1).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조성(調性)의 차이
3. 분박과 노랫말의 상관관계
3-1). 언어와 리듬의 상관관계
다. 통일세대 예배음악의 적용을 위한 효과적 대안
1. 21세기 새찬송가의 활용 방안
2. 통일세대의 예배문화 인프라 구축
2-1). 새터민 예배 적용
2-2). 북한 선교를 꿈꾸는 교회들의 필수적 적용
2-3). 디아스포라의 치유와 회복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미국 풀러신학교 리처드 마우 총장은 2008,03.30 한국을 방문하여 새문안교회(이수영 목사)에서 '오늘날 현대인의 예배'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한 말이다.

"신구(新舊)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 세대 사이의 소통이 절실합니다."

그는 세대 간 통합 예배가 교회와 성도, 특히 청소년들의 심리·정신적 건강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통합과 성도들간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것이다. 마우 총장은 통합 예배와 함께 교회 내 신구 세대의 소통에 있어서 중·장년층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기독교 철학과 세계관의 대가로 미국 종교계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학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예배를 통합해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예배는 교회 내 세대간의 소통과 신학적인 면에서나 예배학 측면에서도 옳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말에 대해 한국의 몇몇 내로라하는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구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

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과연 작금의 예배문화의 변화없이 신.구세대를 모아만 놓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양음악적 세계관에 번안되어지고 작곡되어진 서구적 찬송 일변도의 예배콘텐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마오총장이 말하는 신.구세대의 단절된 예배가 통합이 될까?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길들여져온 문화적 차이와 음악적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오총장의 말속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한가지 논제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반으로 한 예배음악 콘텐츠, 즉 음악의 양식과 내용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오총장의 이러한 예리한 지적을 통해 남한 땅에서도 청.장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배문화가 없는데 하물며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예배문화가 있는지 자각해야할 때가 이제 온 것이다. 21세기 통일세대를 살아갈 한국기독교는 지금의 미국식 "경배와 찬양"의 편협된 예배문화와 콘텐츠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현 "경배와 찬양"의 문화가 많은 부분에 순기능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가지 세대 간 단절시킨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통일세대에 대비한 한국기독교음악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몸말

가. 통일세대를 대비한 예배문화 기반(infra structure) 구축의 걸림돌

내적치유의 전문가인 임삼식목사[1]가 새터민들을 위한 수련회(2005년)의 강사로 초청받아 실재로 경험했던 내용이다. 그 당시 새터민 수련회 기간 동안에 국내에 내로라하는 강사들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 새터민 청소년들을 휘어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자본주의 맛을 본 이들은 옷 입는 것, 화장하는 것 등등.. 그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주위가 산만하고 떠들어대며 집중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3분박 찬송"[2]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희한하게도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을 뿐만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껴안고 동포애를 누리며 은혜를 받더라는 것이다. 그

1) 예수전도단(YWAM) 소속으로 현재 미국LA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외 내적치유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외국강사에 의해 출발한 내적치유 프로그램이 이제는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적용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한분으로 평가 받고 있다 .

2) 일종의 국악적인 리듬과 가락을 현대화한 창작곡으로 현재 예배현장에서 훌륭하게 접목되고 있는 예배음악 콘텐츠이다.

광경을 보고 자신도 놀랬었고 그 덕에 자신의 강의를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었노라고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때 그 강사님은 “너희들 지금 남한에 와서 무엇들 하고 있는거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1만원 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립스틱, 화장 당장 지우고 씹고 있는 껌들 뱉고 정신 차리고 강의에 집중해....”라고 사정없이 꾸짖었는데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더라는 것이다. 다른 강사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3분박 찬송”의 위력이었다고 간증 하였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 실화의 핵심은 성령의 기름부으심 있는 검증된 예배음악 콘텐츠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그날의 “3분박예배”를 통해 한 핏줄 한겨레의 동포애와 동질감을 느끼게 했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남한 내에 또다른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새터민들의 이러한 작은 실예를 보더라도 한국 기독교는 이제 통일 이후 아니 지금 당장 남한에 와있는 새터민(탈북자)부터라도 함께 지성소에 들어갈 예배문화 콘텐츠를 연구해야할 때가 왔다고 본다. 작금의 교회예배문화의 현실은 새터민 젊은이들에게 남한 젊은이들의 열린 예배문화를 경험케한다는 명목으로 힙합, 브레이크댄스등의 서구적인 예배 콘텐츠를 동원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하나 그것은 썩 효과적이 않다고 본다. 그들의 정서 속에 한민족의 3분박의 유전자가 남한의 젊은이들 보다 더 고스란히 간직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과연 향후 통일세대들의 수 십 년 동안 격리되어 버린 문화와 세계관의 벽을 어떻게 한 순간에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한민족 안에 동일하게 내재되어있는 문화적 공통코드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3분박찬송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다.
논자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북한의 정서와 제일 흡사한 조선족에게 가서 이 3분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중국 연길에 2년(2003-2004년) 동안 검증 작업을 했었고 이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며, 또한 최근의 한국교회안의 현장 활동을 통한 반응을 통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21세기 통일세대에 대비한 한겨레 한민족이 하나 되어 효과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예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먼저는 한국기독교 예배문화의 현실과 그 안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문제점들을 예배 음악적 차원에서 다루며 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연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신,구세대의 예배문화 단절

1-1). 제도를 통한 모색의 한계

지방의 어느 대형교회인 광주새순교회[3]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교회는 예배와 영성이 뛰어난 교회인데 담임목사님이 외국에 출타중 신.구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광경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당장 자신의 교회에 실행하기위해 돌아오자 마자 예배의 형식을 대폭 개선했다. 청장년부와 주일학교 예배까지 모두 통합하여 11시 예배 때 함께 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3개월이 못되어 기성세대 교인들이 도저히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다시 예전처럼 분리해서 드리자는 건의가 빗발친 나머지 결국 예전의 예배형식으로 돌렸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며 떠들어대는 것을 통제하느라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청소년학생들은 마지못해 예배드리며 적응하지 못해 결국 6개월 만에 예전의 예배형식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서양사람들은 신.구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들은 그들의 음악적 세계관과 언어적 정서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곡(曲)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곡에다 언어만 바꾸어 그대로 부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공통적 공감대를 끌어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예배사역자들이 만든 찬송곡의 형식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외국의 음악적 양식을 그대로 카피했을 뿐이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러한 번안곡이나 외국스타일의 곡 자체가 문제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콘텐츠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찬송곡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당연히 좋아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마오총장이 주장했던, 교회 내 세대간의 소통과 신학적인 면에서나 예배학 측면에서 신.구세대가 함께 드려져야할 예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지금의 서구중심의 편중된 예배문화로서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대부분의 영적지도자들은 세대간의 예배문화의 단절을 해결하는 것으로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신·구세대를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제도만 만들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가 세대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핵심은 그러한 예배문화 속에 사용되는 예배음악인 비언어(non-verval Langua ge)속에 내재되어있는 공통의 문화적 코드로 풀어가며 예배를 적용했을 때에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

3) 합동총신. 담임 윤정중목사이며 광주광역시에 위치하며 교인수 4천여명 되는 교회이다.

이일은 결과적으로 통일세대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예배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논리는 실재로 필자의 수많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실재적 대안이라고 본다.

1-2). 세대간 단절된 예배에 대한 위기의식 결여

대부분의 기성세대 성도들 소위말해서 장년에서 노년층의 성도들은 지금의 미국을 비롯한 서구식 찬양과 경배의 예배문화에 대해 어려워서 따라 부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예배문화가 현대예배의 대세이고 흐름이기에 시대에 뒤지지 않는 교회, 구세대 교인이라는 취급을 당하지 않고 싶어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들을 많이 한다. 물론 세대간 단절된 예배문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예배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3분박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기성세대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러한 예배는 처음 경험해본다'. '너무 좋다.'[4]라고 얘기들 한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햄버거 문화와 버터문화, 소위말해서 서양식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젊은이들 또한 "3분박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구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실재로 2006년 8월 "선교한국"때 5천여명의 대학생들이 드렸던 은혜 넘치는 3분박의 역동적 예배[5]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예배 후 찾아와 하는 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문제는 신.구세대간의 단절된 예배문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향후 마지막 물결의 부흥세대와 맞물려갈 통일세대들이 드려질 예배문화에 대해 진정한 고민이 없는 것 자체가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기독교의 영적 사대주의로 인해 서구의 영적권위자가 말할 때에 비로서 그것이 그런가 인식하지 말고 지금 이때에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귀 기울여 들여야 할 것이다.

---

4)
아버지학교 수료식때 굳거리 장단의 "거룩한 성전"을 부를 때 기성세대들의 반응

5)
선교한국때 자진모리 장단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부를 때의 젊은이들의 반응

*2),3)의 광경처럼,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예배를 인도할 때 일어서서,손들고,손뼉치며하라는 멘트를 지시하지 않아도 대개는 회중들이 스스로 반응한다.

2. 민족정체성을 파괴하는 한글의 어절법 파괴

한국기독교 음악은 대부분 서양음악적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의 21세기 새찬송가[6]가 나오기전 지금도 50%정도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통일찬송가에는 서양음악적 세계관에 의해 작곡되어진 4분박 곡들이 정확히 96.7%나 차지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찬송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일선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작곡법과 노랫말의 상관관계에서 언어구조에 따라 악곡의 형식이 적용되는 원칙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7]. 또한 서구의 라틴어의 구조와 우리 한글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침 받지 못한 많은 한국의 예배사역자들이 한글의 어절법을 파괴하는 일을 저질러도(?) 누구하나 심각하게 지적하거나 개정을 촉구하라고 얘기하는 예배전문가들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8]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갑니다"라는 식의 잘못된 어절법의 노랫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다음장 "3분박이란 무엇인가"에서 그 개념에 대해 소개할 것이지만 몇가지 간단한 예만 들어본다면, "여호와 ∨ **의산**에 올라"(오라우리가 曲)[9], **"**주다스 ∨ **리시네"**(산을 넘고 曲), "십자가 ∨ **에못박** ∨ 혔나니"[10](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曲), "예수우 ∨ **리형제**"(주는 우리아버지 曲), "**보리주님** ∨ **과담대히**"(주님과 담대히 曲), "사랑하 ∨ **는나의아** ∨ 버지"(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曲)등등 셀 수 없이도 많아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거기다가 라틴어와 한글의 문장구조(Structure)상 우리글에는 관사용법이 없는 특성상 못갖춘마디와 갖춘마디 정서에 나오는 악곡형식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번안되었거나 작곡되어진 어절법 파괴 또한 심각하다. 이는 다 언어구조의 차이점을 변별(distinction)하지 못해 무분별하게 번역만 해서 단어만 붙이면 번안곡이 되고 노랫말이 되는 줄 아는 착각 때문에 이러면 번안곡이 되고게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찬송곡에 주님 본질적인 요소인 노랫말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많은 없다. 적벴지"세상가요들은 이 노랫말의 어절법원칙의 기본은 지킬려고 노력등등는 점에서 한국기독교 음악은 요소반성해야 한다. 아마지"한국기독교음악의 이런 현실에 대해 국문학자가 알게 된다면 통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과 통일세대의 예배음악과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

6) 다행히도 21세기 통일찬송가에는 50여곡이나 우리의 정서인 "3분박곡"이 들어있어 매우 고무적일 뿐만 아니라 통일세대를 대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여겨진다.

7) 이렇기에 한국기독교 안에 하루빨리 "음악목사"제도가 생겨나야 할 필연성을 느낀다.

8) 본인이 이 개념에 인지하고 있을 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했던 책이 문성모지음 "민족음악과 예배 "(한들,1997)이다. 이 책의 저자는 현, 서울장신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문성모목사이시다.

9) 여호와가 '옛산'에 올라로 들을 수 있다.

10)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애못'이 박혔다로 들린다.

한 민족의 언어적 정서가 파괴된다는 말은 언어정체성을 잃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나아가 남북한의 동질성까지도 파괴되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현재 북한 지하교회에 중파로 방송을 송출하여 북한 내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퉁잇돌 선교회"의 이시온부장의 증언에 의하면 실재로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예배음악과 설교자료를 MP3로 녹음해서 은밀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처음엔 현재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있는 최신 경배와 찬양곡을 보내줬더니 그들의 반응은 '따라 부르기 너무 어렵고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하여 다시 옛날 복음송들을 녹음해서 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이다. 성경 MP3 도 처음엔 개역성경의 내용을 보내줬는데 알아 듣기가 어렵다고하여 북한식 용어로 다시 개편한 성경을 만들어 보내줬더니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고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40년이 지난 남북의 정서가 세계관은 물론이요 언어적 변별력까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마당에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나 함께 예배드릴 때 과연 서로간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고민과 그에 대한 대비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혹자는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되는 것이지 무슨 콘텐츠가 중요한가라고 말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효과적 통로와도 직결되는 언어와 노랫말의 상관관계를 재인식하고 이를 위한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이요,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과 효과적 대안 중에 하나라는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

나. 통일세대를 대비한 예배음악 콘텐츠의 중요성

음악은 신이 주는 탁월한 은총이다. 음악의 원천이 되는 fwnhv(포네;소리)[11]는 언어-음성-음악과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소리를 통해 만드셨고

*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다.

*사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11) fwnhv(5456, 포네)

소리가 조직화되고 패턴화되어 의사를 전달하게 될 때 그것이 음악이 되는 것이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의 문체 하나 하나가 세계적인 문학장르를 구축하였던 것보다 더 중요한 영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했다는 것이며, 독일의 슈베르트는 그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독일 가곡에 부쳐 작곡하므로 가장 비음악적인 언어를 세계적인 음악언어인 "리이트(Lied)"라는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던 것처럼 일반은총 안에서도 언어와 음악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16세기 덴마크 경제는 두 번의 큰 전쟁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도 곡창지역 슐리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을 넘겨줘 쓸모없는 황무지만 남긴 상태에서 온 국민이 좌절에 빠져있을 때 그룬트비목사[12]는 도탄에 빠진 덴마크 경제를 일으켜 세웠는데, 지금은 선진 낙농국가, 젊은이들이 유학가고 싶은 나라로 만든 것이다. 그룬트비는 여러분야에 있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를 세웠지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음악을 통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그가 만든 노래 1,500여곡이 교과서에 실리고 전국민들의 입에서 불려지고 그 결과 국민의 의지가 살아나고 선진국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어둡고 깊은 한숨만 쉬던 민족을 치유한 것이다.[13]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음악의 힘은 위대하다.

예배에서의 찬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노래와 찬송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에 찬송을 드리며 받으실 분은 오직 한분이시라는 말이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찬송 자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신다.

*출15:2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계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찬송 중에 임하신다. 특히 시22:3, 신10:21에 사용된 찬송의 원어는 "테힐라"로서 찬송과 관련된 원어중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실 때 사용되는 유일한 단어이다.

12) 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 1783`1872
13) 시노래운동본부 편저 『장엄한 밀물』(치유,2009), 26-27쪽 인용.

*시2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신10:21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 만큼 예배에 있어서 찬송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자는 없다. 문제는 이 찬송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찬송의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 24,000여 족속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와 복식(服食),음식, 생활습관, 노래 -그중에 민족마다 민족특유의 선율과 리듬이 존재한다-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각 민족의 문화 키워드를 통해 하나의 복음 안에 다양한 예배로 영광받고 싶으신 것이다.

*계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10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제 지구상의 수많은 음악패턴 중에 가장 원초적인 음악의 출발이 되는 리듬(장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세계 민족 중에 유일하게 3분박을 주도적으로 쓰는 한국민족의 장단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한겨레의 유전자 3분박 장단(리듬:Rhythm)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그들 특유의 리듬과 선율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론적으로 24,000여 족속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과 소멸을 통해 현재 음악적인 패턴으로 실용되고 있는 리듬패턴은 변형패턴까지 합하여 약 500여 가지나 된다. 그러나 이 수많은 리듬패턴은 딱 3가지의 리듬형태로 분류된다. 그것이 바로 “분박”이라는 개념으로 2분박,3분박,4분박이다. 그런데 오늘날 아라랏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세 조상[14]의 원류인 셈(황인종), 함(흑인종),야벳(백인종) 족속들이 사용하는 분박을 보면 함과 야벳족속은 4분박, 셈족속은 2분박을 주도적으로 쓴다. 놀랍게도 3분박을 주도적으로 쓰는 민족은 셈의 후예인 한국민족 밖에 없다. 이 3분박은 우리의 전통음악(소위 말하여 국악)속에 80%이상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민속학은 이보다 더하다. 특히 전통판소리 5마당[15]은 거의 100% 가깝게

14) (창9: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창9: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좇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15)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3분박 리듬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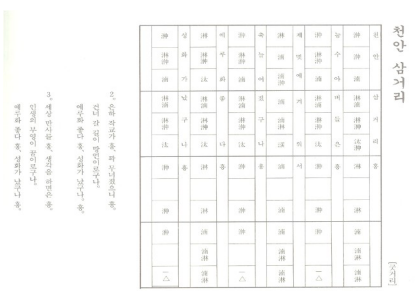
참고로 “국악곡”이라하지 않고 “3분박곡”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면, 전자나 후자나 분박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원래 동이민족[16]으로서 한민족(韓民族)이 지녔던 역동성과 진취적이며, 힘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흥(興)보다는 비역동성인 소극적이며, 슬프고, 음울한 한(恨)적인 요소로 변질되었기에 원래의 우리민족이 지녔던 특성을 회복하여 바르게 적용하기위해 개념상 차별화 뿐만아니라, 실재로 예배적용을 위한 작곡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차이점은 기존의 국악예배팀은 연주감상 위주라고 한다면, “3분박예배”는 경배와 찬양과 같은 예배 안에 접목하는 뉴패러다임의 예배라는 점이다.

1-1). 분박(分拍)이란 무엇인가

“분박”과 “박자”는 다르다. “분박”은 “박자” 안에 이뤄지는 “소박(小拍)”을 말한다. “박자(拍子)”(영어로는 time, rhythm, measure, beat가 다 이에 해당된다)란, 박(拍)이라 불리는 기본 단위들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리듬 유형을 말한다. 보통 악곡의 시작 부분에 표기된 박자표는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박의 수와 기본 박의 길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2박자 계열에는 2/2, 2/4가 있고, 3박자 계열에는 3/4, 6/8이 있고, 4박자 계열에는 4/4, 12/8가 있다. 보통 아래에 해당되는 숫자는 1박을 이루는 음표의 길이를 말하고, 위의 숫자는 1박을 이루는 음표가 몇 박이 들어있는가를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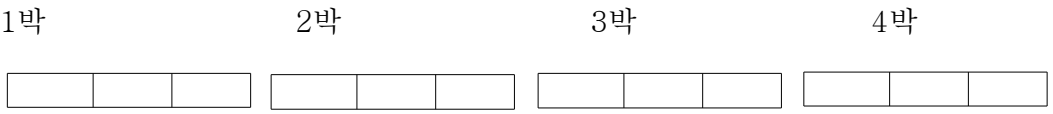
이처럼 ‘분박’은 1박자 안에 나뉘어(split)지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박자”의 소단위가 “분박”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3분박”이라 하면 ‘하나의 박’ 안에 나뉠 수 있는 리듬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3"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그가 만든 한글의 원리가 어절법에도 “3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분이 직접 만드신 동양최초의 유량악보인 정간보[17]는 우물 정(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16) 원래는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동쪽에 사는 민족이라는 뜻으로 한민족이 원래 벌판을 누비는 유목민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나인(중국한족을 일컬음)들이 우리민족을 비하시키기 위해 '동쪽의 오랑캐 무리'라는 뜻으로 한자의 의미를 왜곡시켰다.

17) 

세종대왕이 창안한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이다. 서양음악의 대표적 유량악보(有量樂譜)는 현재 사용하는 5선보(五線譜)이다.

으로 3칸이 한 박을 이루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래 그림은 12/8박자의 “정간보”를 3분박 4박자 기본 구성도도 도해 해본 것이다.



이처럼 1박에 "3"칸씩 분리 되어있는 부분이 바로 “3분박”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3분박”은 주변국인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에서 사용하는 “2분박” 민족과는 전혀 다른 우리 민족만이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분박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야벳족속의 후예들인 서양 음악의 리듬 패턴은 어떤가? 현재 그들의 음악은 주로 “4분박”에 의해 형성된다. 말하자면 1비트 안에 나눌 수 있는 최소의 기본단위가 4개로 나뉘는 것을 말한다. 이 4개의 나누어진 리듬이 2:2로 분리되면 에이스리듬(Ace Rhythm : 부점이 없는 8분 음표를 일컬음), 3:1로 분리되면 샤플리듬(Shuffle Rhythm : 점팔분 음표와 16분 음표로 이루어진 부점이 있는 리듬을 일컬음)이 된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예배음악, 특히 경배와 찬양 음악의 대부분은 이 야벳족속의 DNA라고 볼 수 있는 “4분박”으로 구성되어있다.

2. 음악적 세계관의 차이

일단 우리음악과 서양음악의 세계관의 차이를 도표로 비교해 본다.

	서양 음악	우리 음악
양식	다성적, 화성적	단성적, 헤테로포닉, 칸틸레이션
조성	장조,단조	평조,계면조
템포	맥박이 기준	호흡에 기준
관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 공간에 어울리느냐에 관심	그 공간에 존재하는 대상에 관심
세계관	사물을 분석적으로 보며 미시적이다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며 우주적이다
결과	선율끼리 음정이 어울리느냐를 합리적으로 따짐	음정 관념 없이 전체를 아우르고 보듬어 감

위의 도표에 기준하여 우리의 음악적 세계관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서양음악의 작곡가와 우리 음악의 작곡가가 숲속을 거닐며 새소리를 들으며 작곡을 한다고 가정할 때, 서양음악 작곡가는 각종 새들의 소리가 그 숲속에서 상호간 일정한 음정에 의해 어울리는 소리인가 아니면 어떤 새의 울음소리는 그 공간에서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므로 화성적인 어울림만

을 고려하여 곡을 구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음악은 숲속이라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새들의 존재가치 자체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각 새들끼리의 어울림 보다는 숲속이라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를 표현하는 곡을 구상하게 된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 전자의 서양음악은 화성적 음악과 다성적 음악이 탄생되는 것이고, 후자의 우리음악은 성경의 시가서의 양식과 동일한 단성적 음악과 헤테로포닉[18]의 음악이 탄생되는 것이다. 전자는 새소리들의 협화와 불협화를 가리는 것은 분석적이며, 미시적인 감각이 수반되지만, 후자는 그 새소리를 전체로 묶어 대 자연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생각하는 우주적인 감각이 따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음악은 서양음악에 비해 훨씬 심오할 뿐만 아니라 통전(通典)적, 통합(integra tion)적이며, 인간미가 있는 음악이다.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서양음악은 우수하고, 우리음악은 저속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이제는 하루빨리 벗어나야한다.

한민족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일제 36년 강점기에 신학문(新學問)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근대사의 초석을 이루었던 많은 우리음악가들 스스로가 우리의 것을 저급음악으로 취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하는 "홍난파"씨 같은 분이 이에 속한다. 그는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을 저급음악으로 취급했고, '한국민족은 울기위하여 음악을 찾는 민족'이라고까지 비하했으며,[19] 심지어 임종 시에는 삼베옷 대신 연미복[20]을 입혀달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2-1).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조성(調性)의 차이

또 한가지 통일세대와 모든세대(a ll genera tion)가 함께 공유할 우리민족의 공통된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隨伴:a ccompa niment)되어야 한다.

위의 세계관 차이 도표에서 유의해서 볼 점은 조성에 평조, 계면조라고 표기되어있는 부분이다. 서양음악의 개념에서 오는 장조, 단조의 개념과 우리음악의 조성인 평조와 계면조는 어떻게 다른가를 전문가들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학창시절 배워온 음악과목들을 통해 대개 서양 음악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조성에 대한 개념 이해도 서양 음악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인식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일단 조성의 표현에 있어서 6/8

18) 여러 악기로 하나의 선율을 동시에 연주하되 이것을 선율적으로 변형하여 연주함으로써 생기는 음악 또는 그러한 짜임새. (브리태니커사전 참조)

19) 임수철저, 『O.K국악 정악편, 작은 우리』(서울, 1993), 97쪽.
필자 주 :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에 포함되었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음악 부문에도 선정되었다.

20) 서양음악에서 지휘할 때 지휘자들의 정장

박자나 3/4박자, 4박자 계열인 4/4박자일지라도 그 곡이 3분박일 때는 장조, 단조라고 말하면 옳지 않다. 이때는 평조나 계면조라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지난날 90년대 발간한 한국찬송가공회의 새찬송가가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다 폐기처분된 일이 불과 몇 년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소위 교회음악박사님 한분이 극동방송에 출연하여 그 당시 "새찬송가"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를 나열하는 것을 들었다. 그중에 하나가 찬송가는 힘차고 패기 있게 불러야 하는데 이번 새찬송가에는 "단조" 찬송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당시 필자가 조사해본 바로 새로 추가된 찬송곡들이 국악스타일의 곡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었는데 그중 "계면조"곡을 그 음악박사님은 "단조"로 착각하신 것이다. 코드상 겉으로 보기에는 "단조"나 "계면조"는 다 마이너 코드(예: Dm)로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기독교 음악의 현실이다. 이는 대부분의 교회 음악 전문가들이 서양음악을 전공했고 서양 음악적 세계관의 관점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음악의 "계면조"[21]는 서양음악의 "단조"의 개념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음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조"는 장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장조에 비해 어둡고 슬픈 느낌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조로 배웠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우리의 "계면조"는 서양음악이 가지는 "장조"의 개념과 "단조"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장조"가 가지고 있는 남성적이고, 패기차고, 밝고, 쾌활한 면과 전자에 언급한 "단조"가 가지고 있는 개념 모두를 품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코드 상으로 "마이너"코드로 기입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단조"의 개념으로 보는 몰이해가 문제인 것이다. 한마디로 서양음악의 "단조"로는 "흥"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음악의 "계면조"는 "흥(興)"과 "한(恨)"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 국악의 정악에는 슬픈 곡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이불비(애而不悲)한 음악, 즉 슬픔도 결코 슬픔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는 음악이 바로 우리의 정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악 곡은 계면조로 된 곡조차도 꿋꿋하고 화평 정대한 느낌을 줍니다.[22]

물론 정악과는 달리 민속악에는 민초들의 애환을 그리는 내용들이 많아 슬픈 느낌을 주는 곡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전언했던바 계면조가 가지는 특성상 "비(悲)", "희(喜)"를 다 품고 있기에 우리민족은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도

21) 이 계면조의 특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책 2부의 "계면조의 비밀"을 참고 하십시오.
22) 임수철저, 『O. K 국악 정악편, 작은 우리』(서울, 1993), 97쪽.

곧 바로 덩실 덩실 어깨춤이 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평조도 마찬가지다. 세계민족이 다 좋아하는 아리랑[23]을 보라 3분박리듬인 세마치에 조성은 평조이다. 평조임에도 아리랑을 느리게 부르면 슬픈 노래로 들린다. 그러나 이 노래를 빨리 불러보라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민족의 조성에 평조든 계면조이든 그 속에 희노애락(喜怒哀樂)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어느 민족이 슬픈노래까지도 젓가락을 두들겨가면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의미는 우리 민족의 정서의 본질속에는 "한(恨)"을 보듬어서 "흥(興)"으로 승화시키는 매우 낙천적 기질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 민족이 슬프고 염세적인 민족이었다면 5천년 동안 모진풍파 속에 이렇게 남아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낙천적인 것이 지나쳐서 과거를 금방 잘 잊어버리기에 냄비근성의 민족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이다.
사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 민족은 우리의 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세계 민족 중에 자기의 것을 이렇게 터부시 여기는 민족이 또 있을까 싶다.

3. 분박과 노랫말의 상관관계

3-1). 언어와 리듬의 상관관계

언어는 음운학의 특성상 운소[韻素][24]의 기능으로 볼 때 "리듬"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그 언어가 노랫말로 쓰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전인평님의 책『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악』[25]에 보면 중국의 한시와 한국의 시를 비교해 볼 때 운소의 기능상 어떠한 리듬의 차이가 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

중국 시와 리듬

---

23) 유석근 지음. 『또 하나의 선민 알이랑 민족』(예루살렘,2009. 11판 인쇄)에서는 아리랑의 뜻풀이를 "알이랑" '알'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 '~이랑'은 "with"로 "하나님과 함께"라고 풀면서 "아리랑"은 성경과 민족사의 만남의 중요한 노래로 인류의 최초의 찬송가라로 주장한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민족은 원래가 제사장민족으로서 원래의 잃어버린 부르심을 회복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성경적 근거를 통해 주장한 책이다. 현재는 이 책을 잃은 많은 국내외 신앙인들이 자생적으로 모인 중보기도 모임이 생성되어 정기적으로 한민족 정체성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이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인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동을 받는 이 곡이 바로 "3분박곡"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24) prosodeme 운소(韻素), 말의 뜻 분화에 관련하는 소리의 요소로서 음의 고저, 강세, 연접(連接)의 총칭
25) 전인평,『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악』(현암사, 2008),

소년이노 학난성 일촌광음 불가경
少年易老 學難成 一村光陰 不可經
4/4 ♩ ♩ ♩ ♩ 𝅗𝅥 ♩ ♩ ♩ ♩ ♩ ♩ 𝅗𝅥 ♩ ♩

한국 시와 리듬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12/8 ♩♪𝅗𝅥. ♪♪♪𝅗𝅥. ♩ 𝅗𝅥.♪ ♪♪♪ ♪𝅗𝅥.♪♪

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칠언 절구(七言絶句)의 한시는 모두 일곱 자로 되어있어서 4/4박자로 음악을 만든다면 '소년이노 학난성'의 각 글자마다 4분음표가 하나씩 붙는 한자 한음씩의 구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우리말로 고친 시조는 글자 수가 17자로 늘어났다. 그 바람에 리듬이 다양해졌다. 이처럼 같은 내용의 시라도 한시(漢詩)가 한글로 번역되면서 달라지듯 중국음악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다른 음악으로 탈바꿈하였다.[26]

언어에는 이처럼 운소[韻素]의 기능이 있다. 운소란 말의 뜻 분화에 관련하는 소리의 요소로서 음의 고저, 강세, 연접(連接)의 총칭하는 뜻인데 이렇게 각 민족의 언어에는 음악적 요소가 자연스레 용해되어 있음에도 작금의 한국 기독교 예배음악은 이러한 특성을 전혀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음악에 대하여 무지하기까지 하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름답고 우수한 언어인 한글의 정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어도 누구하나 제대로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구적 예배음악으로 점철된 한국예배음악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어절법의 파괴는 더 심각한 상태이다. 부끄럽게도 세상의 가요보다 더 어절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에다 한수 더 떠서 국내 복음성가 작곡가들은 이러한 잘못된 원칙이 오히려 올바른 것으로 착각하여 많은 창작곡 또한 작곡법상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간된 "21세기 새찬송가" 에는 우리 한국인이 작곡한 128곡 중 "3분박" 곡이 무려 50여곡이상 수록되어 있는데 한국교회의 실정상 대부분 서양 음악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교회 음악 지도자님들은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3분박곡을 4분박으로 부를 때 가창, 지휘법등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거룩한 성전"[27]이라는 곡을 4분박 번안곡과 함께 정간보로 비교해보겠다.

---

26) 위의 책, 183쪽.

어절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확연이 드러남을 보게될 것이다.

A. 거룩한 성전(손해석 작곡 - 3분박 곡)[28] : 이제 전형적인 3분박 4박자인 "굳거리 장단"[29] 12/8박자의 곡

1박			2박			3박			4박		
거	룩	한	성	전	에	거	하	시-	며	-	-
하	-	늘	보	좌	에	계	-	신-	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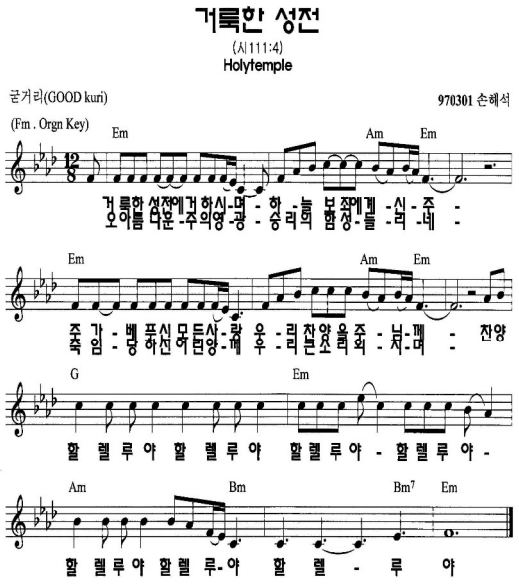
B. 거룩한 성전(Walt Harrah작곡- 4분박 곡, 번안 곡) : 4분박 4박자인 4/4박자의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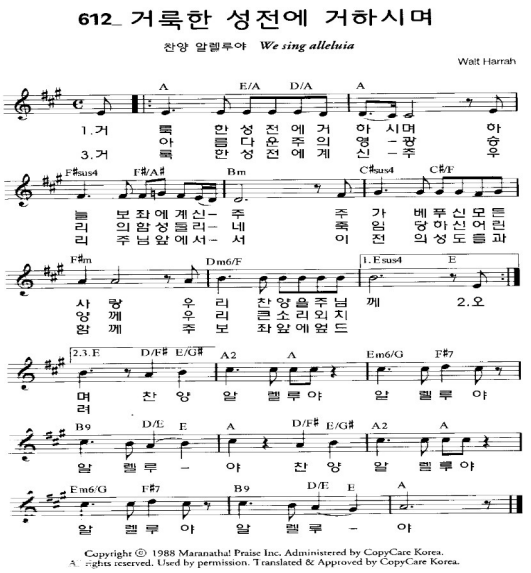
못갖춘마디 형식이므로 "룩"을 1박에 배치한다(참고, 4분박에서의 한 칸은 16분음표의 길이에 해당된다).

1박				2박				3박				4박			
														거	-

---

27) 97년 3월1일 작곡한 3분박곡으로 경배와 찬양접목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곡이다. 이곡은 외국의 "the Lord is in His Holytemple" 과 동일한 가사로, 한국기독인이 똑 같은 가사를 "4분박"으로 불렀을 때와 "3분박"으로 불렀을 때 어떠한 감흥의 차이가 나는가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신 곡이다. 지금 이곡은 국.내외 많은 교회와 인터넷 개인 싸이트에 한국적인 음악을 표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8)

29) 본 연구소에서는 "굿거리"를 언어구속(Redeeming Language)하여 "굳거리"로 사용한다. 이 장단은 한민족의 애환을 같이 해온 매우 주요한 장단으로서 하나님이 이 장단을 주셨을 때 "굿"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굳다"로 언어구속을 한 이유는 순수한 우리말로써 한민족의 정서와 너무나 흡사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굳다"의 뜻은 '단단하다' '강하다' '모질다' '끈질기다' '세차다' '변함없다'등의 뜻을 담고 있다.

룩	–	–	–	–	–	한	–	성	–	전	–	에	–	거	–
하	-시	며	–	–	–	–	–	–	–	–	–	–	–	하	–
늘	–	–		보	–	–	–	좌	–	에	–	계	–	신	–

우리글은 3분박의 장단에 맡기 때문에 A곡의 정간보를 보면 가시적으로도 음운과 어절법이 딱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의 번안 곡은 첫 출발부터 칸의 배치가 불완전하게 느껴지면서 어절법이 전부 파괴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경배와 찬양에서 불리는 매우 많은 곡들이 이러한 어절법 파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 받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여기며 인정조차도 하지 않으려 한다. 예배학의 전문가중 유일하게 찬송가 위원 중에 국악을 전공하신 문성모목사[30] 많이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는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문화 전달의 중요한 구실을 한다. 언어란 음성 문자를 사용하여 감정,정보,요구등을 사회 관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해진 기호를 통해 전달하는 민족 정체성의 도구이다. 언어적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곧 정체성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이며 나아가 언어를 잃어버리면 민족정체성도 사라진다. 한때 청나라를 지배했던 만주족들은 그들의 언어를 잃어가면서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한족에게 흡수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 감정기때 우리의 언어를 없애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썼던 이유를 알 것이다.
그런데 한국기독교음악은 이러한 우리의 언어적 정서와 체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심각하게 지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향후 통일세대들에게 가장 귀한 문화적 유산을 남겨야할 한국기독교의 기성세대와 영적지도자들로서 깊은 자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다. 통일세대 예배음악의 적용을 위한 효과적 대안

이제 통일세대를 대비한 한국기독교 안에 이 3분박의 음악을 성공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되어야할 과제들이 있다. 이것은 통일세대 예배문화 성공적 접목을 위해 이러한 예배문화 조성을 위한 몇가지 주요한 요소들의 적용방안을 통해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한다.

30) 한국찬송가위원중에 유일하게 국악을 전공한 분으로 서울대학 국악이론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예배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현재는 서울장신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첫째는 세미나 및 웍샵을 통한 인식의 전환 이며, 둘째는 제도권 교회안의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셋째는 새터민 교인들에게 우선적 적용을 해보는 것이다. 넷째로는 새터민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게 적용하고, 다섯째는 해외동포 디아스포라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1. 21세기 새찬송가의 활용방안

드디어 오랜 산고 끝에 2006년 9월에 기존의 통일찬송가에 기존의 빈도수가 낮은 곡들을 일부 빼고 한국인이 작곡한 새찬송가 128곡이 추가되어 발간되었다. 금번 출간된 21세기 새찬송가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되는 기회라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때에 새찬송가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통일 찬송가가 세월이 흘러 새로운 찬송가를 불러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겠지만, 이 새찬송가에 수록된 128곡을 분석하면서 "아, 이일은 한국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으셨구나"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다. 현재 새찬송가를 쓰는 교회를 현장에서 조사해보면 50% 이상의 교회가 사용한다고 응답한다. 향후 몇 년 후면 이제 21세기 새찬송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역사는 절대로 우연히 되는 일은 없기에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128곡 중 무려 50여 곡이 3분박 곡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곡들이 수록되어있다는 것이다. 한국찬송가공회에서 발행한 새찬송가 머리말에 보면

> ...외국의 찬송을 번역하여 부르던 시대에 이어, 이제는 우리의 정서로 표현된 한국인 작사, 작곡 128곡을 수록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찬송가의 17곡에 비하여 선교 122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우리의 찬송가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31]

현재 목포 극동방송 "우리가락 우리찬송"[32] 시간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같은 3/4박자, 6/8박자 곡일지라도 3분박과 4분박곡의 가창법,지휘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 안에 오후예배나 성가대를 통해 이 3분박곡들을 부르며 한국교회 정규예배안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방법이다. 이미 모두가 합의하에 채택된 찬송가이니 만큼 몇 년 후면 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불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3분박에 대해 익숙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오랫동안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

31) 『찬송가』 대한기독교서회.(2006년) 머리말 참조.
32) 2009년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20분씩 21세기 새찬송가에 나온 3분박곡을 소개하고 직접 부르고 배우는 시간을 녹음방송 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은 대부분 적응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좋아한다. 특히 노년층들은 얼굴에 주름살이 다 펴지면서 어깨춤을 절로 추며 좋아들 하신다. 문제는 오히려 목사님들과 교회 음악전공자들 그리고 예배사역자들안에 편견이 더 문제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서양 음악적 세계관에 전공한 지휘자들과 예배사역자 안에 이 3분박에 대한 느낌과 지휘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세미나나 웍샵을 통해 인지시키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하나님은 21세기 통일세기의 문턱에 한국교회 안에 “21세기 새찬송가”를 채택케 하시고 50여곡이상이나 3분박곡을 지혜롭게 삽입[33]하신 것을 보면 참으로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때가 이르렀다고 감지된다.

이제 남한에서의 모든 세대(all generation)와 통일이 되어 남북이 함께 드릴 때 이 새찬송가에 들어있는 50여곡의 곡만 열심히 불러도 세대간 단절, 남북간 단절되어 있는 예배문화를 하나로 회복할 수 있는 검증된 좋은 콘텐츠로서 주워졌다고 본다.

2. 통일세대의 예배문화 인프라 구축

2-1). 새터민 예배 적용

남한에 천신만고 끝에 넘어왔지만 남한에서의 정착을 위해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는
새터민들에게 동질감과 동포애를 넘어 함께 지성소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이 3분박 콘텐츠를 활용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 본인이 새터민에게 이를 적용하였을 때 이러한 부작용도 있었다. 모통이돌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하사관 선동선전요원출신인 “이옥자매”는 처음에 이 예배음악을 접하면 김일성이 연상되어서 거부반응이 나타났다고 한다. 김일성정권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 줄도 모르고 속아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남한에 와서 또 이러한 음악이 연상되게 하는 음악을 듣게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나중에서야 3분박이 우리민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예배음악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었더니 그제야 이해하고 두 번째 접했을 때는 너무 좋아하면서 지금은 3분박 찬송의 매니아가 되어버렸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은 김일성 자신의 주체사상과 더불어 한민족의 우수한 음악을 세계화 시킨다는 견지아래 김일성이가 직접 교시를 내려[34] 권장했던 우리가락, 우

33) 50여곡의 새찬송가들은 대부분 3/4, 6/8박자로 표시되있고 코드는 90% 이상이 평조(장조)코드로 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3분박곡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그점에 있어서 불과 몇 년 전 새찬송가를 발행하였으나 교계 음악전문가들의 10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는데, 그 중에 국악곡이 삽입된 것에 대한 항의에 의해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폐기 처분했었다.

리의 리듬이 사실은 거의다가 3분박이라는 점에 있어, 우리는 통일세대에 더 한층 자신 있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는다. 이미 몸말 서두에 언급했듯이 새터민 수련회에서 있었던 실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는 새터민들에게 가르치는 힙합,블랙댄스를 호기심에서 따라하겠지만 실재로는 예배로서 적응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이 3분박찬송을 통한 예배문화 조성은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북한 선교를 꿈꾸는 교회들의 필수적 적용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대부분 예배문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교회를 아직 보지 못했다. 기왕 21세기 회를 아의 3분박곡들을 적용할 때 새터민들과 함께 이 예배를 적용해보기를 바란다. 분명 회동포애와 동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터민들의 남한에 정착하면서 또 한 가지의 애환은 자신들이 정작 남한에 왔지만 이방인 취급당하는 것이 싫어 기회만 된다면 미국등 제3국에 나가 살고 싶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안다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과 함께 이조성하여 함께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함께 지성소예배를 맛보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안에 있는 새터민들하고도 함께 예배를 공유할 예배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통일 이후 어떻게 북한동포들과 함께 효과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2-3). 디아스포라의 치유와 회복

3분박음악의 적용은 결코 민족주의적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해외 거주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정체성회복과 신,구세대의 갈등을 해소하여 한민족이 하나되게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이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비전성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며 영혼육의 전인구원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콘텐츠가 되기 때문이다. 노동은교수는 우리 몸의 호흡에 따라 기(氣)를 일으키도록 돼 있는 한국의 장단 체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 개탄해 하면서 서양의 리듬 논리인 3/4박자로는 민족 음악의 혈맥을 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유 장단의 해체는 민족의 음악적 생명 훼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35]

논자가 경험한바 캐나다,미국,연길,태국,말레이지아등 여러나라에서 이 3분박 예배를 적용한바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1세대와 1.5세대의 세계관의 갈등[36]으로 인한 어려움등을 세대간의 단절된 벽을 무너뜨리는데 이 3분박

---

34) 북한은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국악기의 현대를 통한 세계화 작업을 이미 끝내고 아쟁을 제외한 모든 국악기들을 현대음악의 12음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금의 전통 국악기들은 5음계 위주로 되어있어 해금을 제외하고는 현대 12음기를 연주하거나 조바꿈을 하기가 어렵다.

35) 노동은저, 『한국음악론』 (한국학술정보,2002)

예배가 얼마나 주효한가를 실재적으로 입증되었다. 750만의 해외동포들의 정체성 회복과 특히 야벳문화권에 사는 해외동포들의 열등감과 1.5세들의 정체성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조선족들[37],고려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디아스포라에게 이 3분박찬송을 통한 예배를 공유하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나오는 말

2001년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예배문화연구센터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의 일이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는 풀러 신학교 M.Div 졸업생인데 아프리카 예배를 연구하는 교수님 한 분이 마지막 졸업 인사 때 아시아권 학생들 앞에서 정중히 사과를 하시며, 그 동안 서구 선교사들이 여러분걸려뭔화는 비성경적이며, 비거룩한 뭔화 일하여 모두 버리게 했던 잘못을 범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수는 "이제 여러분이 고국에 돌아가면 여러분걸려가면했던 한 예배음읅직했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더라는 것이다. 고국에 돌아와 생각해보È돌아가면X분이 마지음읅직했전문연주자용이사 감상용이당시의 일찬양과 경배의 예배문화에 접목하기에 애쓰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화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예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미 전도종족이 분포되어있는 아시아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제 21세기 성령의 역사는 아시아권에 불이 붙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성령의 불이 점화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라는 확신/을 지고 있다. 그 때에 대해서는 구

---

36) 1세대들은 한국적 세계관 1.5세대 이상은 미국적 세계관에 물들어있어 가정에서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많은 방황하는 젊은이들 깨어진 가정 갈등구조 속에 있는 교포가정이 많음

37) 필자가 2002~2004년(2년간) 북한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연길 조선족에게 이 3분박예배를 접목하고 검증하였는데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았다. 아래 1),2)의 그림은 2003년 12월25일 크리스마스 특별예배 중국 용정의 "용정교회"(불신자들까지 다 초청한 예배로 그날 반응이 너무 좋아 앵콜예배로 다음날 똑같은 예배를 또 한 번 드렸다). 3),4)는 "연길교회"에서 특별 잔치예배 때 목사님과 성도들의 흥겨운 춤과 부채춤을 추는 광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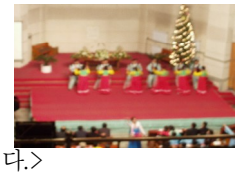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체적으로 남북이 하나 된 이후 “한민족”이 통로 역할을 할 것 이라는 것에 대해 세계적인 영적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시점은 통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점은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다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단, 이 예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한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다.

이 독특하고 경이로운 3분박의 리듬패턴이 우리민족의 반만년 역사동안에 면면히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런데 더욱 경이로운(?) 것은 이 리듬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 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해 반 만 년의 문화가 순식간에 박물관 문화와 천박한 문화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 2분박 리듬인 엔카 음악의 아류인 트로트(일명, 뽕짝)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주인이 돼버린 것이다. 불과 36년 동안에 그들이 이 땅에 이루어버린 업적(?)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어찌 3분박만 이러한 일이 있었겠는가마는...

감사드리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주님이 주신 3분박 곡들을 통해 중보예배와 한민족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97년 3월 “거룩한 성전”곡을 주신 이후 본격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거룩한 성전”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은 국내의 많은 교회들이 이 곡을 비롯하여 이 곡에 수록된 앨범 안에 있는 여러 곡들이 한국적인 퍼포먼스 예배 곡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현지 선교사님들의 증언대로 한국에서 온 예배 팀들이 거의 다가 “거룩한 성전”의 곡으로 퍼포먼스하며 예배한다는 것이다.

(사42:8)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또 하나의 새 역사 창조를 위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아 갈 것이다. 반만년 역사동안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한민족의 정체성과 비전회복을 위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한다.

끝으로 이 땅에 생명을 다 바쳐 그렇게도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정체성 회복을 위해 무던히도 애쓰셨다가 몇 년 전 순교하신 “예수원” 창시자 토레이 신부님[38]의 말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 생전의 그분의 말씀을 지면에 옮기며 본 논고를 마친다.

---

38) 강원도 “예수원”설립자로 한국명은 “대천덕” 신부이시다.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상실증 환자[39]와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니만큼 한국으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 R .A. Torrey(예수원 설립자)

****

참고문헌

1. 문성모지음 “민족음악과 예배 ”(한들,1997)
2. 임수철저, 『O.K국악 정악편, 작은 우리』(서울, 1993),
3. 전인평,『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악』(현암사, 2008),
4. 유석근 지음. 『또하나의 선민 알이랑민족』(예루살렘,2009)
5. 『찬송가』대한기독교서회.(2006년)
6. 노동은 『한국음악론』(한국학술정보,2002)
7. 시노래운동본부 편저 『김소엽시로 노래부르다 -장엄한 밀물』(치유,2009)

39) “기억상실증환자”라는 의미는 한민족으로써의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뜻이며, 1983년도에 “예수원”을 방문할 당시 놀랍게도 “3분박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지금 “예수원”은 필자의 앨범 “거룩한 성전”에 수록된 곡들이 그들의 애창곡들이 되어있다. 그때는 필자가 아직 “3분박 비전”에 대한 계시를 받기 이전이었다.